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장 교육

진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업국장
정성원 프란치스코 신부



자비의 특별히년

Merciful Like the Father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 루카(6,36) -



자비의 특별 희년

- **2015년 3월 15일**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비의 특별 희년' 거행을 발표
- **2015년 12월 8일**(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6년 11월 20일**(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마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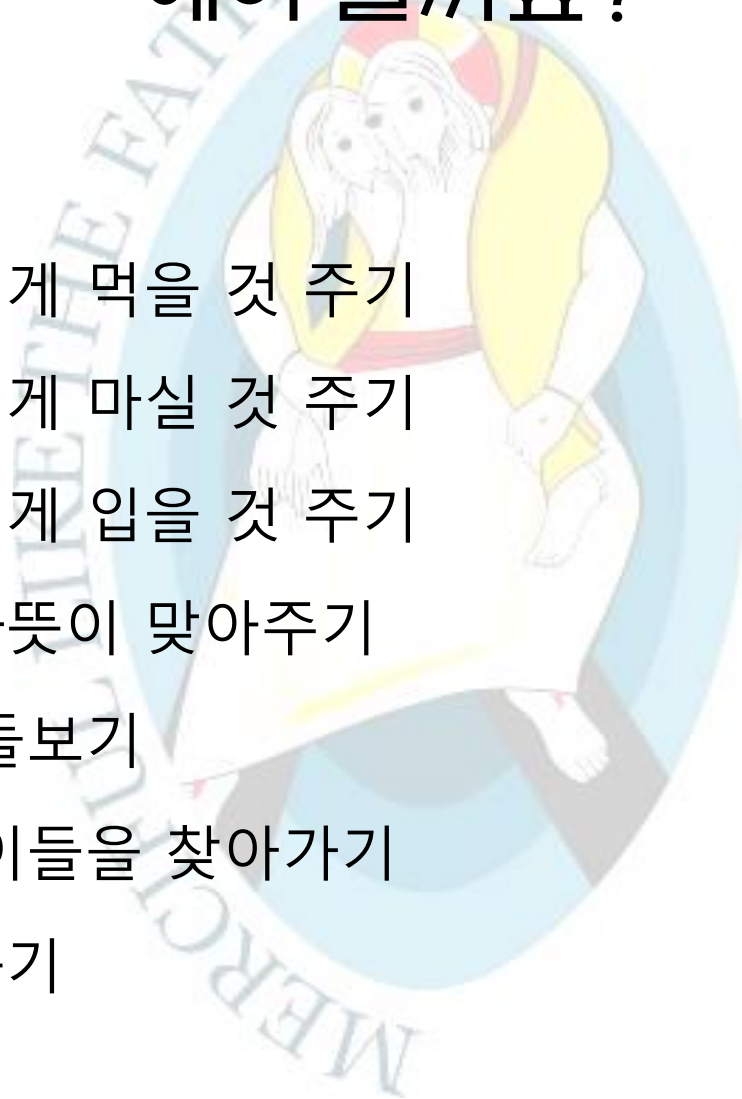
자비의 특별 희년 이란?

- 교황은 자비의 특별 희년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도록 권고**
-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칙서 [자비의 얼굴]을 통해 알 수 있음.
- 이 칙서에서 “**자비란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며,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용서를 통해 위로를 가져다 준다**”고 설명
- 모토는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하고 우리도 그 자비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

지비의 특별 희년을 시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 육체적 활동

1.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 주기
2.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 주기
3.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
4.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아주기
5. 병든 이들을 돌보기
6.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기
7. 장례에 참여하기



지비의 특별 희년을 시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 영적활동

1. (신앙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기
2. (신앙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3. 죄인들을 꾸짖기
4.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기
5. 모욕한 자들을 용서하기
6.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이 견디기
7.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기

자비의 특별 희년을 통해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할까요?

- 전대사를 실제로 받아 누리려면, 신자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의 표시로 '자비의 문'으로 짧은 순례를 해야 함
- 전 세계 모든 교구의 주교좌와 공동 주교좌성당, 교구장이 정하는 순례지의 성당 성문을 순례하면 모든 신자가 똑같은 전대사와 은총을 받게 됨. 이때 고해성사를 보고 성찬례에 참여하며 자비를 묵상해야 함.
- '자비의 문'은 세상 모든 곳의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교구에서 이 특별 희년 동안 열어두라고 교황이 부탁한 특별한 성문임.
- 12월 13일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성문을 열 때 각 교회의 자비의 문을 열기를 권고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Caritas



*서울대교구 사목국 자료 변환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교회의 가르침은 새로운 복음화의 나침반

신앙의 해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히브 12,2)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로 나아갑시다.



신앙의 기초 강화하기

- 다섯 가지 표어

1

•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성경 읽고, 쓰고, 묵상)

2

•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아침저녁, 식사, 삼종, 묵주, 가정을 위한 기도)

3

•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공의회 문헌, 교리서)

4

•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미사 참례, 성체 신심)

5

•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실천하는 믿음)

1. 2016년 사목 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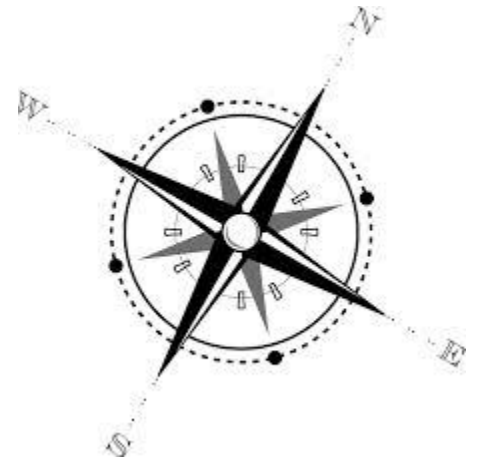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교회의 가르침은 새로운 복음화의 나침반

1.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2. 순교 영성의 삶

3. 자비로운 삶



2. 2016년 사목 교서

교회 가르침을 따르는 삶

1. 성숙한 신앙인의 삶: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
2.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써 하느님과 대화
3. 세상 안에서의 악의 세력의 활동: 거짓 예언자나 교사들
4.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 (요한 10,16)로 살아야
5.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파견
 - (1) 세례를 베풀고 계명을 가르쳐 지키도록
 - (2) 이 사명이 사도들의 후계자인 교황과 주교들에게 전수

3. 2016년 사목 교서

교회 가르침을 따르는 삶

5. 신경(信經):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

(1) 주일과 대축일 미사 중에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

(2) 신앙 선조들의 순교와 증거에 기초한 정통 신앙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핵심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전해 줌

(1)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신앙의 해' 선포하면서 이 두 문헌을 특별히 강조

4. 2016년 사목 교서

교회 가르침을 따르는 삶

-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은 “올바로 읽혀져야 하며, 교회의 전통 안에서 교도권의 중요한 규범적 문헌들로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 세기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확실한 나침반을 우리는 공의회에서 발견합니다. 공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쇄신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믿음의 문, 5항)
- (3)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결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리서는 교회 생활 전체의 쇄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 교리서가 신앙 교육을 위한 확고한 규범이며 교회의 친교를 위해 유효하고 권위 있는 도구임을 확인합니다.”(믿음의 문, 11항)
- (4) 교회 가르침은 신앙 여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

5. 2016년 사목 교서

순교 영성의 삶

1. 이 땅의 신앙 선조들

- (1) 150년 전 병인년 신앙의 순교자들을 기억
- (2) 교황 프란치스코: '기억의 지킴이'가 되어 달라고 주교님들 당부
 - ① 가톨릭 교우들은 믿고 따른 진리를 위해 순교한 선조들을 공경
 - ② 지혜롭고 위대한 민족은 선조들의 전통을 소중히 여김
 - ③ '기억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 이상을 의미
 - ④ 현실적이어야. 지금 회개하라는 부르심에 응답
- (3) 정약종의 「주교요지」, 정하상의 「상재상서」 등의 교회 가르침
- (4) 민족 분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신앙 선조들에 대한 기억 & 신앙 생활이 자유로운 통일 국가 위해 노력

6. 2016년 사목 교서

자비로운 삶

1. 교회 가르침의 핵심: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2. 교회의 사명은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으로써 세상에 증거해야
3. 교황 프란치스코
 - (1) '자비의 희년'(2015년 12월 8일~2016년 11월 20일)
 - (2)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 (3) "지금은 자비의 시대입니다. 평신도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 환경에 자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2015년 1월 11일 삼종 기도)
 - (4)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음

7. 2016년 사목 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1. 땀의 순교의 삶

- (1) ‘피의 순교’ -----→ ‘땀의 순교’의 삶
- (2) ‘땀의 순교’는 교회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노력하는 일
- (3)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비를 닮아 이웃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

2016년 사목 교서에 따른 지침

<사회사목>

“말씀’으로 시작되고 ‘기도’로써 자라난 신앙을 이제 **‘교회의 가르침’**으로 더욱 다져가는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2016년 사목교서)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교회의 풍요로운 유산인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한 강론과 교리 교육을 통하여 반드시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스며들어야 하며,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한국 주교들과 만남,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 중)

<사회사목>

1. 우리 모두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형제들", 즉 모든 일하는 사람들(마트 계산원, 전화 상담원, 식당커피숍 점원, 경비원 등)을 친절히 대해주며, 그들도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격려의 인사말을 자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2.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사회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각 지역, 지구,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본당 신자들과 함께 지역 내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가톨릭 신앙을 지닌 어르신들이 가톨릭 영성을 유지하여 영적인 보살핌 안에서 선종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독자들이 치료를 통해 회복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하느님의 자비가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문화예술 복음화'를 통해 전례 안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사목>

6. 소외받은 이들을 찾아나서라고 말씀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각 본당 구역, 반에서 다문화 가정을 먼저 방문하여 그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일반병원 내 모든 환자 및 보호자의 영적 돌봄을 위해 체계적으로 원목봉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8. 자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사목적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자비의 시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결한 일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211항)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삼가고, 물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천하고, 나무를 심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것을 통해 환경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5.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그 자비와 사랑(교회 가르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인을 위한 기도 지향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 (2) 본당 내 독거어르신들을 주민센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시설과 연계하여 밀반찬지원(도시락배달 등), 독거사(자살)예방, 노인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 (3) 본당에서는 교회의 사회복음화 및 지역사회, 그리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시설과 연대하여 사랑 실천 나눔에 함께 합시다.
- (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주관하는 가톨릭사회복지학교, 사회사목분과교육,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
- (5) 1가정(또는 1인)의 1가지 지속적인 자원봉사(재능기부 등)와 1곳 후원하기에 함께 합시다.